

관동지방교회

## 제74회 정기 총회 개최 새 지방회장에 김용소목사를 선출



2023년 4월 29일, 동경교회에서 총대 84명 중 70명(위임 11명)이 참석하여 제74회 관동지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부회장 신대영장로의 사회로 이명총회장이 “나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22)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주요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장로 증원청원 허락 : 요코하마 1명, 시나가와 1명, 동경 7명
- (2) 지방목사 승인 : 김병호목사(총간사 퇴임후)
- (3) 2023년도 예산 승인 : 10,700,000엔(그 중 7,002,000엔은 총회분담금)
- (4) 목사안수식 : 이은주(한사랑), 장성(한사랑)
- (5) 선교사 가입식 : 강영진목사(동경제일), 마영열목사(센다이)
- (6) 신임원
  - 회 장 : 김용소목사(니시아라이)
  - 부회장 : 김신야목사(요코스카), 야나기마치 이사오장로(요코하마)
  - 서 기 : 김명균목사(치바) · 부서기 : 홍용표목사(기타카미베엘)
  - 회 계 : 이영구장로(요코하마) · 부회계 : 김혜진장로(가와사키)
- 7) 각부 부장
  - 전도부 : 강장식목사(시나가와) · 교육부 : 정유성목사(동경동부)
  - 사회부 : 이상경목사(가와사키)
  - 선교협력 : 김병철목사(동경성산)
  - 청년부 : 조영석목사(반석) · 여성부 : 김근식목사(한사랑)
  - 장년부 : 곽은주목사(샘물) · 고시부 : 이명총목사(요코하마)
  - 감 사 : 박영원장로(시나가와), 김영천장로(동경)



중부지방교회

## 제60회 정기 총회 개최 새 지방회장에 최화식목사를 선출



2023년 5월4일(목) 도요타메구미전도소에서 중부지방회 제60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대원 28명중,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종 보고와 임원개선, 헌의안 등이 승인되었다. 개회예배에는 지방회장 김명균목사가 ‘모이는 것에 힘을 쏟다’ (히브리서10:19-25)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이진용 목사의 사적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주요 결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장로증원 : 나고야교회(1명)
- (2) 요카이치교회 해산결의
- (3) 박태원목사, 김지일목사 무임소목사 연장 승인
- (4) 2023년도 예산안 승인 : 16,848,314円
- (5) 중부지방회 규칙(제4장11조7항) 개정 :  
(임직원회는 임원과 각부장과 각 교회, 전도소의 담임목사와 각 교회로부터 파송된 시무장로1명으로 조직한다.)
- (6) 임원개선 :
  - 회 장 : 최화식목사(나가노)
  - 부회장 : 이진용목사(도요타메구미), 이대종장로(나고야)
  - 서 기 : 허광섭목사(오카자키) · 부서기 : 채은숙목사(오가키)
  - 회 계 : 최재훈장로(나고야) · 부회계 : 고재도장로(나고야)
  - 전도부장 : 채은숙목사(오가키) · 교육부장 : 김성언목사(도요하시)
  - 사회부장 : 이대종장로(나고야)
  - 청년부장 : 김형진목사(치쿠마비전)
  - 재정부장 : 최재훈장로(나고야) · 여성부장 : 이정자권사(나고야)
  - 고시부장 : 최화식목사(나가노)
  - 한일선교협력위원회 : 김명균목사(나고야)
  - 전자미디어위원회 : 권윤일목사(하마마츠)
  - 회계감사 : 여화숙(나고야), 조술섭(나고야)



관서지방교회

## 제74회 정기 총회 개최 새 지방회장에 박영자목사를 선출



2023년 5월 5일, 오사카북부교회에서 총대 65명 중 59명이 참석하여 제74회 관서지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교토남부교회 아라이유키목사님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27)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주요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사안수 : 함미라목사(후세)
- (2) 장로 증원청원허락 : 교토 2명, 교토남부 1명, 오사카북부 3명, 오사카 2명
- (3) 오사카남부교회 해산건을 가결.
- (4) 관서지방회규칙 개정의 건을 가결.
- (5) 신임원
  - 회 장 : 박영자목사(토요나카제일부흥)

- 부회장 : 김종권목사(히라노), 모리카츠유기장로(오사카)
- 서 기 : 김충락목사(사카이) · 부서기 : 송남현목사(오사카제일)
- 회 계 : 요시이히데오장로(교토) · 부회계 : 김광성장로(오사카)
- 7) 각부 부장
  - 전도부 : 조영철목사(오사카북부) · 교육부 : 박애선목사(이마후쿠)
  - 사회부 : 신용섭목사(K C C) · 선교협력 : 김종권목사(히라노)
  - 청년부 : 양양일장로(오사카) · 여성부 : 고경미장로(오사카)
  - 장년부 : 미요카와타로장로(교토남부)
  - 고시부 : 박성균목사(와카야마제일)
  - 남골당위원회 : 전성삼목사(후세)
  - 시찰부 : 박영자목사(토요나카제일)



서부지방회

# 제39회 정기 총회 개최 새 지방회장에 한승철 목사를 선출



4월29일(토) 서부지방회의 제39호회 정기총회가 고베동부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에는 아카시교회 이성우명예목사로부터 “교회의 기초” (고전 1:11-13)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고, 회장대행 한승철 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총대원 32명 중, 24명이 출석하고, 각종보고 및 임원개선과 현의안 등을 승인했다.

중요한 보고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신임원
  - 회 장 : 한승철목사(고베동부)
  - 부회장 : 한세일목사(고베), 양창희장로(무코가와)
  - 서 기 : 윤중헌목사(아카시) · 부서기 : 최형철목사(오카야마)
  - 회 계 : 백승호장로(고베) · 부회계 : 김철호장로(고베동부)
- (2) 제38회 서부지방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 (3) 서부지방회 내규개정 승인
- (4) 무목교회 등 재건 특별위원회 설치 승인
- (5) 임시당회장 선임 승인
- (6) 예산안 승인 : 8,197,804엔



서부지방회

# 손신일목사 위임식 거행 재일 목사로서 니시노미야교회에 부임



2023년5월21일(주일), 서부지방회 니시노미야교회에서 손신일목사의 위임식이 서부지방회 각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거행되었다.

예배는 임시당회장 윤중헌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설교는 총회장 나카에요이치(中江洋一)목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전2 : 1~4)의 제목으로 하였다.

위임식은 서부지방회장 한승철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어 소개와 서약, 기도 후에 손신일목사가 니시노미야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것을 선포하였다.

금번 서부지방회로부터 니시노미야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손신일목사는, 1959년 일본에서 출생하여 한국의 연세대학교 신학과, 장로회신학대학원, 미국 부롱스위크신학교 등을 졸업하고 2000년 관동지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히메지약수교회 전도사, 미토교회 목사, 오사카교회 부목사를 지내고 2008년부터 체코 형제단복음교회 코빌리교회의 일본어 예배 담당 목사로 섬긴 후, 이번에 니시노미야교회에 부임하였다. 가족은 부인과 2남이 있다.

서부지방회

# 제73회 정기 총회 개최 새 지방회장에 신치선 목사를 선출



5월 5일(월) 후쿠오카 교회에서 제73회 서남지방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개회 예배에서는 김성효회장이 <우리는 주님의 가족> (마가복음 3 : 31-35)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김인파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였으며, 총대 18명(준총대/내빈 포함 32명)의 출석으로 개최되었다. 주요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신임원
    - 회 장 : 신치선목사(후쿠오카 중앙)
    - 부회장 : 윤선박목사(하카타) 박재덕장로(오키나와)
    - 서 기 : 조현규목사(벵푸) · 회 계 : 고문국 장로(벵푸)
  - (2) 부장
    - 전도부 : 김성효목사(구마모토) · 교육부 : 주문홍목사(고쿠라)
    - 사회부 : 광용길목사(오키나와) · 청년부 : 조현규목사(벵푸)
    - 여성부 : 이혜란목사(오리오) · 선교협력부 : 윤선박목사(하카타)
    - 시찰부 : 박영철목사(쓰시마메구미)
    - 고시부 : 김성효목사(구마모토)
    - 역사편찬위원회 : 윤선박목사(하카타)
  - (3) 장로 선출 승인 : 고쿠라 1명, 오리오 1명, 후쿠오카 2명, 하카타 1명
  - (4) 서남지방회 예산안, 10,800,201엔을 승인.
- 폐회예배는 지방회장 신치선목사가 <절망을 희망으로> (누가 5:12-16)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축도후에 폐회를 선언했다.



武庫川교회

# 최미혜자장로 장립식 거행 권사 취임식과 명예장로 추대식도



2023년4월30일(주일) 무코가와교회에서 최미혜자장로 장립식, 김선영권사취임식, 강원기명예장로추대식이 거행되었다.

당회장 양영우목사의 사회로 나카에요이치(中江洋一)총회장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딤후4장13-16절)라는 제목으로 설교 후, 서부지방회장 한승철목사의 사식으로 최미혜자장로 장립식을 거행하였다. 그 후 당회장 양영우목사가 김선영권사 취임식, 강원기명예장로 추대식을 거행하였다.

서부지방회로서는 23년 만에 두 번째 여성장로가 선출된 것이다.

최미혜자장로는 1961년 후쿠오카현에서 출생하여, 1977년 고쿠라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부군으로는 임명재장로이다.

금번에 서부지방회와 관서지방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 예배당이 가득한 식이었다. 코로나의 종식을 알리듯, 은혜사 넘치는 기념식전이었다.

## 韓日対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 :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では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

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大阪교회

# 창립100주년 기념예배 거행 김혜심, 김성자 장로장립식, 김애리, 유미선, 김유향 권사 취임식도 동시에



김혜심 장로



김성자 장로

처음, 그 시작의 시간에 100년이란 긴 세월로 이어져 갈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조선 땅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온 어린 두 소녀는 물살고 낮은 이국땅에서 손을 모았다. 고향이 그리우면 기숙사 방에서 이불 덮어 쓰고 울었을 것이고 부모님과 가족들이 생각나면 보따리 싸들고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어디 한 두 번이었을까? 소녀는 풀학원의 창고 한구석에서 신학생 한명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102년 전, 오사카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 소리였다.

100년의 기념, 이것마저도 수월치 않았다.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사태로 긴급조치가 내려지고 몇 달이 지나면 좋아지겠거니 생각한 것이 몇 차례 연기를 거듭해 온 100주년 기념예배와 감사의 축제를 온 교우들과 주변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하고 싶었기에 미루고 미루었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다. 102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창립 기념주일에 시계를 뒤로 돌려 교회창립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희년을 알리는 빨나팔을 호산나성가대 지휘자인 신행열집사(트럼펫연주자)의 연주로 감사의 100년을 알렸다. 글로리아 취주악단의 희망의 광파르 <Fanfare for Hope>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온 교우들은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과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오사카교회에 속한 어린이들과 연로하신 교우들과 노인대학 학생들이 다시 손을 모았다. 성가대의 찬양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는 기념주일에 어우리는 감동을 줄만한 찬양이었다.

<감사의 100년, 희망의 100년>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주년 대회가 오사카여학원에서 1300명의 신도들이 모인 예배에서 제49대 총회장이었던 정연원목사가 선포한 설교의 제목이었다. 지난 100년의 감사, 앞으로 맞이할 100년은 희망만이 넘치기를 기원하는 바램으로 우리 자손들이 맞이할 시대를 바라면서 100주년 기념설교를 다시 외쳤다. 오사카교회의 비전문 발표를 통해 교회사명을 다짐하였고, 외부초청을 자제한 가운데 총간사 김병호목사와 부산수안교회 이만규 원로목사의 축사를 통해 교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 예배에는 본교회의 창립자 중 한 분인 신남수집사의 손자 윤호신명예장로(본교회), 2대 한덕철장로의 손녀 한경은권사, 장제근장로(제주영락교회)가 참석을 한 것은 큰 의미였다.

100주년 감사예배에 이어 축하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영광회(노인부), 권사회, 노인대학, 당회, 여성회, 수안교회 사랑중창단의 찬양과 남성회의 댄스공연과 한국무용팀 할렐루야의 부채춤이 있었다. 특별출연으로 동양농악기독교전도교회의 田中久祥목사의 축사와 수화찬양이 있었다. 동양농악교회는 오사카교회 건축 후, 3층 예배실, 교실을 사용하여 주일예배, 수요기도회를 43년간 드러온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다. 수화 찬양을 함께 나누는 참석자들은 눈물을 닦아 내기도했다.

마지막 순서는 오사카교회 연합성가대가 <은혜>를 찬송함으로 지나는 100년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하나님과 선배들에게 감사하면서 새로운 100년은 희망으로 맞이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함께 하는 축하회였다.

오후3시 임직식이 거행되어 김혜심, 김성자 장로 장립, 김애리, 유미선, 김유향 권사 취임, 명예추대식은 오영일장로, 한영자, 정정순, 김성희집사로 각각 추대하였다. 예배 설교는, 전성삼목사께서

<언제까지나 있을 열매를 위하여>란 말씀을 주셨다.

관서지방회장 박영자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된 장립식은, 김혜심 장로는, 부친 김용추장로의 차녀로 남편 모리가즈유키(森克之)장로와 함께 부부 시무장로가 되었고(본교회에서 6번째 커플장로), 김성자장로는, 부친 김철두장로(45회기 부총회장), 모친 최상숙장로의 3녀이며, 외조부 최정수목사(본교회 5대 담임목사)의 손녀로 오사카교회와 총회에 큰 의미를 가졌다. 총간사 김병호목사, 김충락목사의 축사와 전국교회여성연합회 부회장 최미혜자장로의 축사를 통해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새로운 봉사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보여주었다.

감사의 눈물과 기쁨을 나누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행진하는 축제의 하루였다. 오사카교회의 지난 100년은 본교회의 교우들의 힘으로만 아니라, 본총회에 속한 100여곳 교회들과 자매교회, 선교협력교회, 선교동역교단과 오사카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이 있음을 확인하는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된다.

(보고: 정연원)



大垣교회

# 창립90주년 기념예배 거행 다음세대로 신앙이 이어지기를 기대

지난 4월 23일, 오가키(大垣)교회 창립9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많은 중부지방회 소속 교회 신도들이 참가하여 축하하였다. 또한 오가키시내 신도회의 신도들이 참가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예배는 중부지방회장 나고야교회 김명균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니와교회 김중현목사와 일본그리스도교회 오가키교회 호리에 노부오장로가 축사를 하고, 나고야교회 성가대가 특별찬양을 드렸으며 풍성한 예배가 되었다.

오가키시(大垣市)는 1990년대까지는 섬유의 도시였다. 섬유, 방직, 염색 등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재일동포들이 많았지만, 이에 따라 교세도 왕성하였으나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며 일자리를 잃은 신도들이 직장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차츰 교세가 약화되었다. 지금의 교회당은 1975년2월 건축하여 계속해서 수리를 해 가고 있다.

이제 100주년을 향하여 가면서 주일학교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보고: 채은숙)



특별연재 4

1923학살의 기억과 십자가 신앙 (4)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며—

김성제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4> 국가 책임으로서의 계엄령, 電文, 그리고 告諭

관동 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은 우선적으로 일본의 국가 책임이 있다. 1882년에 성립한 계엄령(太政官 布告 第36号)에는 <제1 조 계엄령은 전시 혹은 사변에 일어나면 군비를 통해 전국 혹은 한 지방을 경계하는 법으로 한다.> 고 한다. 전지도 사변도 아닌 대지진에 대해 9월2일 정오 계엄령이 정식으로 공포된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긋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엄령이 선포되었는가? 그것은 내무성·군부가 <불량 조선인>에 대한 대응을 전투 태세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엄령의 조문은, 제14조의「檢査」가「檢査押収」「檢問設置」로 확대 해석되어, 그것이 자경단에 의한 검문소가 합법화가 되어 <불량 조선인 사상> 상태를 만들어나는 일이 되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9월1일 오후 2시경, 赤池濃(아카이케 아츠시) 경시 총감이 水野鍊太郎 내무 대신에게 계엄령을 建言(잡지 「사경」 1923년11월호). 内田康哉 임시 내각의 내무상 水野가 다음날 2일 아침 각의에서 계엄령을 건의. 그리고, 추밀원에서의 자문은 건너뛰고, 浜尾新 추밀원 부의장단의 양해를 얻고, 섭정(裕仁)에게 상신하여 재가를 얻어, 2일 정오에 발동했다. 그 경위를 水野는 나중에 증언하고 있다(『帝都復興秘録』 230-236頁).

이날 오후 4시에 조각을 완료한 山本權兵衛 내각은 계엄령하에서 군부 주도의 <불량 조선인> 제압 노선을 이어받게 된다. 9월 1일 십야부터 민간인 구호 활동을 위해서 전국 각지의 군대가 도쿄·관동에 결집되어 가지만, 계엄령 이전에 발령되어 있던 위계령에 의해 군에 의한 조선인 살해 행위가 일부 시작되었다. 계엄령이 발동된 9월 2일 정오 이후, 군은 <불량 조선인> 제압의 행동을 격화시켜 나가는 것이『東京震災録』(別卷 1927年 897-898頁)의「功勳具狀」의 기록과 학살 현장에 있던 병사의 수기에서 알 수 있다.

<功勳具狀공훈구상>은 군인에 의한 치안유지의 공적을 찬양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군대의 학살행위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2일 정오 이후 그 기록 속에 <鮮人>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 뒤에 숨겨진 현실이 무엇이었는가? 당시, 千葉県 東葛飾郡의 야전 총포 제1 연대의 일등병 久保野茂次の <군대 일기> (所収: 関東大震災五十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行事实行委員会編『歴史の真実 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 13-20頁, 特に18頁)에는 9월 29일자 일기에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여성들을 비롯해서 조선인이 참살되는 광경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난외에, <9월 2일, 岩波소위가 병사를 지휘하여 조선인 2백명을 죽였다.> 라고 적고 있다. <功勳具狀> 9월 2일자 에서는 岩波清貞소위의 구호활동을 칭찬하고 있다. 또 하나, 習志野 기병연대 소속의 병졸 越中谷利一の <계엄령과 병졸>이라는 수기에서는, 9월2일, 亀戸(카메이도)에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하여 <내가...출동한 것은 9월2일, 시각으로는 정오 조금 전쯤...그러면서 전쟁 기분! ... 불쌍했다. 수 천의 피난민을 감시하는데 안녕과 질서를 위한다면 도망가는 사람을 등 뒤에서 큰 칼과 총검에 의해 차례차례로 쓰러져 갔다. 라고 피난민 속에서, 무심코 끊어오르는 폭풍과 같은 만세 환희의 소리. <나라의 원수! 조선인은 모두 죽여라!> (所収: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Ⅲ 朝鮮人虐殺に関する知識人の反応2』 106頁 原文での伏字部分は「関東大震災の思い出」(1961年)原稿で復元).

이 광경을 자경단에 참가했던 민간인이 목격하면서 무엇을 마음에 새겼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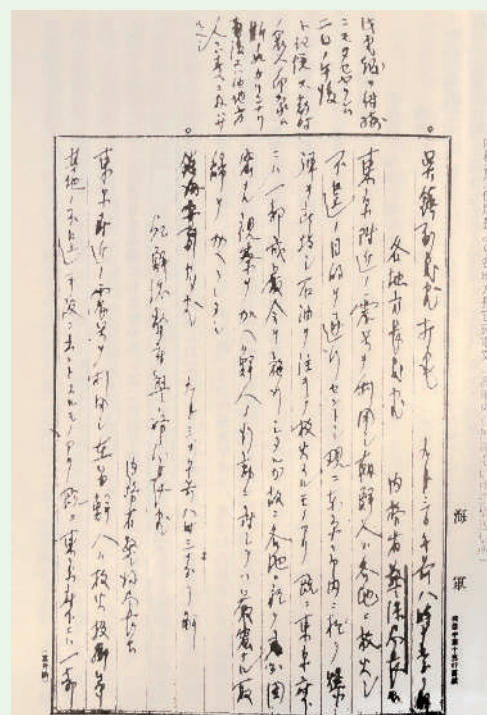
군에 의한 학살이 9월2일의 계엄령에 의해 격화된 후, 자경단에

의한 학살은 관동 지방에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山本 내각은, 적어도 이 문제에 관련되는 3개의 告諭(지금의 내각 결의 발표)를 발표, 9월4일에는 <섭정전하> (裕仁)의 <우려> 를 전해 정부와 국민의 거국 일치를 촉구하고 있었다. 다음 5일의 <조선인에 박해에 대한 告諭>에서는, <불량 조선인>의「妄動망동/不穩불온」을 약간의 사실인 것처럼 쓴 후, 거기에 불쾌감을 품은 민중의 조선인에 대한 박해는 <日鮮同化>의 국가정책에 위배되며, 또 그것이 국제적으로 알면 좋지 않을 것이라 국민에게 자중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논리의 골자는, 학살은 자경단이라는 민중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게다가 16일의 告諭에서는 이 수천명에 이르는 조선인 학살 사건을 <다소 상식이 벗어난 사람들에게 벌을 준 것>이라는 정도의 문제로 정리하고 있다.

水野내무상과 赤池경시총감이 9월 2일에 취한 또 하나의 행동은, <도쿄 부근의 지진 재해를 이용해 조선인은 각지에 방화을 하면서 그들의 불량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쿄 시내에서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부어 방화하고 있다. 이미 도쿄에서는 일부 계엄령을 내렸기 때문에 각지에서도 주도 면밀하게 시찰하여 조선인들의 행동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전문을 해군 도쿄 무선전신소 후나바시(船橋)송신 (所収: 琴乘洞編『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Ⅱ 朝鮮人虐殺関連官庁史料』 158頁).

그 전문은 3일 오전 8시 15분에 발신되고 있지만, 그 전문 원본의 관외에 <이 전보를 전령에게 전한 것은 2일의 오후라고 기억한다.> 라고 주기되고 있다.

셀 수도 없는 증거가 있는 가운데, 적어도 이러한 역사 사실을 어둠에 묻어, 국가 책임을 100년동안 불문에 부치고 있는 민주적 법치 국가가 이 세계에 있을까? 그것을 묻지 않는 공범의 죄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주보는지? 역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内務省警保局長電文海軍東京無線電信所船橋送信所